아찔한 경비행기…불안한 무안공항

김포공항 사고후 조종교육원 지방 이전…12곳으로 늘어

경비행기 하루 300회 이착륙 훈련…"안전 점검·정비 열악"

탑승자 3명 전원이 숨진 경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는 하루 평균 300회 가량 경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있다.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 무안공항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월 2명이 숨진 김포공항 경비행기 추락사고 직후 정부가 항공교통량이 적은 지방공항에 훈련용 경비행기를 분산시키면서 무안공항에서 훈련하는 경비행기 교육기관도 늘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점검 등 안전수칙과 비행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9일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따르면 무한공항에서는 사고기가 소속된 티티엠코리아를 비롯해 초당대, 경원대, 경운대 등 국내 대학과 민간 조종사교육원 12곳이 경비행기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무안공항에서 비행훈련을 하는 경비행기는 모두 43대로, 하루 평균 300회가량 이·착륙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무안공항은 '경항공기 정비시설 구축대상 공항'으로 지난해 초 선정됐다. 국내 항공정비산업 지원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MRO(항공기정비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른 것이다.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경비행기 훈련기관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모두 9곳에서 올해 한라스카이, 청주대 등 3곳이 더 늘었다. 지난 2월 김포공항에서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경비행기 훈련 기관·단체를 지방공항으로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김포공항과 같은 대형공항의 경우 대형 여객항공기의 이·착륙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공항에 분산배치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경비행기 사고는 지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8건이 발생, 10명이 숨지는 등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김포공항 사고 직후 '훈련용 경비행기 안전제고 방안 마련 TF'를 구성해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4달 만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 전문가는 점검 등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초당대 항공정비학과 윤용현 교수는 "굉음이 난 뒤 기수가 들리면서 왼쪽으로 급회전하다가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추측해보면 교과서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굉음의 원인이 기계결함인지 운전자가 급격히 출력을 높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운항 도중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는 지난 3월 안전검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김포공항에서 추락한 경비행기도 사고 5개월 전 같은 검사를 통과했다. 민간 조종사교육원에 대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항공기 전문가는 "민간 조종사교육원은 열악한 재정 여건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관 등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에는 무안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경비행기 외에도 관광 등의 목적으로 초경량비행기(2인승)를 운항하는 업체가 나주 2곳, 담양 1곳 등 3곳이 더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17일 오후 3시9분께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한 야산에 민간조종사교육원 소속의 경비행기(SR20) 한 대가 추락해 경찰과 119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 전원이 현장에서 숨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착륙 준비 중 꽝…탑승자 3명 모두 숨져

무안 경비행기 추락…훈련생 더민주 이학영 의원 아들

블랙박스 없어 사고 경위·원인 등 규명 장기화 할 듯

무안에서 훈련용 경비행기가 야산의 밭으로 추락해 탑승자 3명 전원이 숨졌다. 목격자들은 "비행기가 갑자기 굉음을 내더니 빙글빙글 돌다가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비행기 잔해 등을 수거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지만 경비행기가 전소하고 블랙박스가 없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사고수습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9분께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야산의 밭에서 4인승 경비행기(SR20)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교관 이모(30)씨와 교관 연수생 박모(30)씨, 조종사 교육생 이모(30)씨 등 3명이 숨졌다. 조종사 교육생 이모씨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자녀로 확인됐다.

사고기인 민간 조종사교육원 티티엠코리아 소속의 경비행기는 앞서 오후 2시39분께 이륙했다가 무한공항과 약 5㎞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추락했다. 이 경비행기는 안개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계기에 의존에 운항하는 계기비행 훈련 중이었다.

사고가 난 경비행기는 착륙을 준비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오후 3시6분께 무안공항 관제탑과의 마지막 교신에서 착륙을 요청했지만 다른 교육훈련기의 이륙으로 대기 지시를 내렸고, 3분 뒤인 3시9분께 착륙 허가를 내렸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은 19일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경비행기 잔해 수거 작업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고기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고, 동체가 전소해 사고 원인 규명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사고기의 3중 날 프로펠러, 기체 조각 등의 손상도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또 해당 경비행기의 항적도와 교신 기록 등도 살필 예정이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무안=임동현기자 jdh@

수백억대 분양 사기범 한달만에 자수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분양 혐의 시행사 대표

새벽 편의점서…경찰 공범·남은 자금 등 조사

광주시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시행사 대표 박모(56)씨가 자수했다.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피해금액만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분양사기의 공모자 수사 등 사건 실체규명과 은닉 자금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19일 광주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분양사기를 주도한 지앤디도시개발 대표 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지난달 중순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17일 새벽 4시께 광주교대 부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2013년까지 총 482세대(1호당 면적 22㎡) 가운데 80%가량을 7000만~8000만원에 정상 분양한 뒤 올 초까지 50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1000채가량을 절반가격 수준으로 중복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공범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범행을 통해 박씨 일당이 확보한 자금이 남아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

'5·18 집단발포' 11공수 부대 금남로 '6·25 퍼레이드' 철회

5월 단체 반발에…정치권 박승춘 사퇴 촉구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수부대가 금남로에서 호국 퍼레이드를 한다고?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당시 계엄군으로써 광주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6·25기념 시가행진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민과 5월 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보훈처가 광주정신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며 박승춘 보훈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6·25전쟁 66주년 기념식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호국보훈 한마음 퍼레이드에 제 11공수여단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광주시민 정서를 고려해 퍼레이드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보훈청은 6·25 66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 시민, 학생, 군인, 경찰이 오는 25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옛 전남도청까지 도심 1.4㎞를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계획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육군31보병사단, 광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퍼레이드에는 육군 31사단 소속 장병 150명과 제11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 50명 등 200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비록 호국행사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5·18당시 광주에 투입돼 집단발포를 자행한 11공수(담양 주둔)가 옛 도청앞과 금남로를 행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진경로를 변경하라"는 뜻을 모아 광주보훈청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끝내 거부한 박승춘 처장이 또 다시 5·18을 조롱했다며 박 처장의 해임 문제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보훈처 스스로 광주의 거룩한 정신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며 "보훈처장은 국정운영에 더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문제아인 박 처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3당은 박승춘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 등을 시작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퇴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옛도청 상황실 총탄 흔적 복원 없인 민주평화교류원 임시개관도 안된다"

5·18역사왜곡대책위 촉구

국가보훈처가 1980년 5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6·25 기념 시가행진을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획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6·25전쟁 66주년 기념식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호국보훈 한마음 퍼레이드에 제 11공수여단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광주시민 정서를 고려해 퍼레이드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보훈처는 6·25 66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 시민, 학생, 군인, 경찰이 오는 25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옛 전남도청까지 도심 1.4㎞를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계획했었다. 광주지방보훈청, 육군31보병사단, 광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퍼레이드에는 육군 31사단 소속 장병 150명과 제11공수특전여단 소속 군인 50명 등 200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비록 호국행사 성격이라고는 하나, 5·18당시 광주에 투입돼 집단발포를 자행한 11공수(담양 주둔)가 옛 도청앞과 금남로를 행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진 경로를 변하라"는 뜻을 모아 광주보훈청에 전달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11공수여단은 퍼레이드 참여 계획을 철회했고, 육군 31사단도 광주시민들 정서를 감안해 시가지 행진 참여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25 기념식과 호국퍼레이드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행사임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여자화장실 좌변기 올라 여성 훔쳐본 3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쌍나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중인 여성을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A씨는 지난 2월 새벽 광주시 서구 모 오피스텔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여성을 훔쳐본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

○…광주지법 최창석 판사는 "길에서 만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찾으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좌변기 위로 올라가 여성을 훔쳐본 점 등을 종합하면 불순한 의도가 인정되고, 동일한 유형의 범행과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5개월을 판결.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5타경 24162	1	광산구 풍영로101번길22, 107동 20층 2004호 [흑석동,광주수완지구이지더원아파트] 84.7601㎡	아파트	317,000,000 317,000,000	
2016타경 2190	1	북구 두암동 329 반석힐라 101동 9층 913호 31.77㎡	아파트	78,000,000 78,000,000	
2016타경 4158 2016타경 4165 [중복]	1	북구 서암대로90번길15, 2층 201호 64.5492㎡	아파트	140,000,000 140,000,000	
	2	동소 15, 2층 202호 64.5492㎡	아파트	140,000,000 140,000,000	
	3	동소 15, 2층 203호 64.5493㎡	아파트	140,000,000 140,000,000	
	4	동소 15, 2층 204호 50.022㎡	아파트	106,000,000 106,000,000	
	5	동소 15, 2층 205호 50.022㎡	아파트	106,000,000 106,000,000	
2016타경 60189	3	동구 학동 713-1 학동대주피오레-힐즈 101동 12층 1202호 188.4311㎡	아파트	510,000,000 51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60806	1	남구 군분로10번길 1-2 1층70.80㎡ 2층51.03㎡ 부속건물 변소 1.0㎡	단독주택	56,833,100 56,833,100	일괄매각.지분매각.제시외건물포함.김정숙의1/2지분전부
		남구 백운동 653-56 125㎡ 제시외 가추 등 12.25㎡	대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3261	1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산77-1 36006㎡	임야	201,633,600 201,633,600	분묘소재
2016타경 60189	1	광산구 도산동 1284-2 228.2㎡[김대기지분 1/2전부]	대	101,891,300 101,891,300	지분매각
	2	북구 오치동 934-2 163.1㎡	대	96,718,300 96,718,300	
[자동차,중기]					
2015타경 63419	1	사용본거지:대구 동구 송라로 8 신천동 [신천동] 등록번호:07주4771 차명:인피니티 M35 연식:2006	자동차	10,000,000 10,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2 심산주차장
2016타경 4066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유림로160번길5, 101동 1102호[죽림마을주공아파트] 등록번호:48버4539 차명:그랜저 연식:2005	자동차	6,500,000 6,5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풍영정길65-15대명씨앤피
2016타경 60813	1	사용본거지:동구 계림동 무등로74, 104동 602호[계림동,두산위브아파트] 등록번호:63머5242 차명:스파크1.0DOHC 연식:2012	자동차	6,500,000 6,5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풍영정길65-15대명씨앤피
[기타]					
2015타경 18143	1	북구 무진성길24-14, 109동 4층 402호 [두암동,무등산이스토리] 176.4014㎡ [경매할 전세권의표시:전세금350,000,000원,계약일자2015년5월12일,접수일자2015년5월14일접수제119538호,반환기2017년5월14일까지,존속기간2017년5월14일까지,목적과범위:주거용건물의전부,전세권자:최병환]	기타	350,000,000 350,000,000	매각대상은을구1번의전세권임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7. 5.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7. 12.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2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